

3. 전라남도 항목

- 3-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3-2. 저출산 원인 및 지원정책
- 3-3. 월평균 가구소비
- 3-4. 청년 지원정책
- 3-5.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 3-6. 스트레스 정도
- 3-7. 빈집 활용방안
- 3-8.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3-9. 쓰레기 처리 만족도
- 3-10.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3-11. 여가 활동
- 3-1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3-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3 - 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결혼 및 자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 국민은 결혼 및 자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 결혼에 대한 견해는 ‘하는 것이 좋다’ 31.2%, ‘반드시 해야 한다’ 29.5%로 국민의 60.7%가 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 자녀에 대한 견해는 ‘있는 편이 좋다’ 33.5%, ‘반드시 있어야 한다’ 27.3%로 국민의 60.8%가 자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 15세~29세의 연령대에서 중립적인 응답(‘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은 각각 56.0%, 59.8%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가장 필요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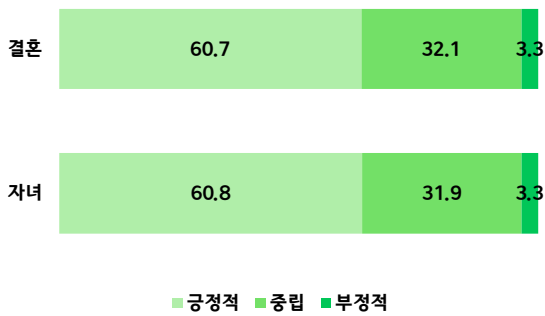
-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항목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주택지원’ 18.6%, ‘충분한 양육비 지원’ 13.9% 순으로 나타남

·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항목이 3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녀양육에 얽매이기 싫어서’ 19.2%, ‘양육비용 부담’ 14.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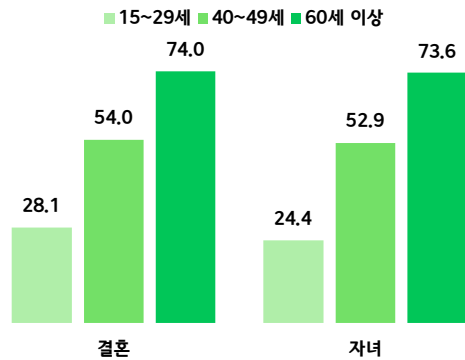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단위: %)



« 연령별 긍정적 응답 »

(단위: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1) 결혼에 대한 견해 (계속)

(단위: %)

구분	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성별〉									
남자	100.0	60.2	28.2	32.0	32.3	3.8	3.3	0.5	3.7
여자	100.0	61.1	30.8	30.4	31.9	2.7	2.0	0.6	4.3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1)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계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28.2	3.1	25.0	56.0	7.2	5.9	1.3	8.7	
30 ~ 39 세	100.0	54.1	10.6	43.5	36.6	3.2	3.2	0.0	6.1	
40 ~ 49 세	100.0	54.1	21.8	32.2	36.6	8.2	5.9	2.2	1.2	
50 ~ 59 세	100.0	60.1	25.7	34.4	35.0	1.7	1.7	0.0	3.2	
60 세 이상	100.0	74.0	44.9	29.1	21.4	1.3	1.1	0.2	3.3	
65 세 이상	100.0	77.5	49.1	28.4	18.1	1.0	1.0	0.0	3.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2) 자녀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계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없어야 한다	없는 편이 좋다		전혀 없어도 된다	잘 모르겠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편이 좋다			없는 편이 좋다	전혀 없어도 된다		
2022년	100.0	60.8	27.3	33.5	31.9	3.3	2.6	0.7	4.0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24.4	4.3	20.1	59.8	7.9	6.0	1.9	7.8	
30 ~ 39 세	100.0	59.8	15.0	44.7	32.1	2.0	2.0	0.0	6.2	
40 ~ 49 세	100.0	52.9	14.7	38.2	39.0	5.9	4.0	2.0	2.2	
50 ~ 59 세	100.0	62.9	25.2	37.7	31.5	2.3	1.8	0.6	3.3	
60 세 이상	100.0	73.5	41.3	32.3	21.3	1.8	1.6	0.2	3.3	
65 세 이상	100.0	76.4	45.5	30.9	18.8	1.4	1.4	0.0	3.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3)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단위: %)

구 분	계	부모교육	아빠양육 제도문화	주택지원	안정적인 직장 소득	유치원, 돌봄시설 확충	직장 육아제도 확충	충분한 양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기타
2022년	100.0	6.8	5.1	18.6	34.1	6.7	8.2	13.9	6.4	0.2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 (4) 자녀 없어도 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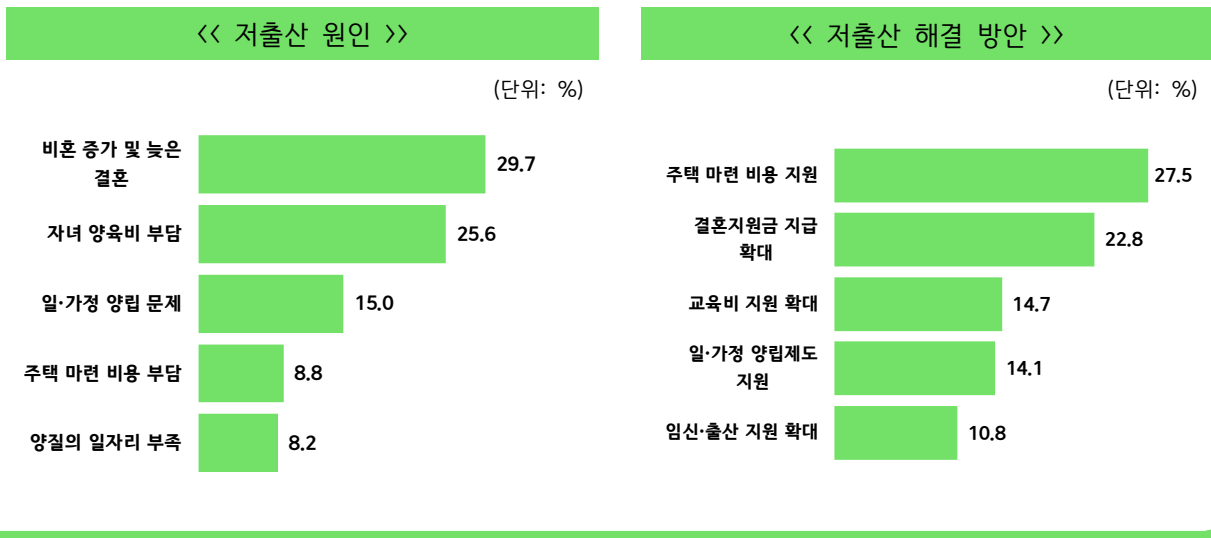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계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양육비용 부담	일에 지장	자녀양육에 얽매이기 싫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독박육아 등 양육시간과 노력 부담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 속에서 키우기 싫어서	기타
2022년	100.0	35.0	14.6	8.9	19.2	12.7	0.0	8.7	0.9

3 - 2.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 군민이 느끼는 저출산의 원인

- **군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저출산 원인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 군민은 저출산의 원인을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29.7%, ‘자녀 양육비 부담’ 25.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15.0%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필요한 저출산 지원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 군민은 가장 필요한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으로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27.5%,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 22.8%,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14.7%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1) 저출산 원인 (단위: %)

구 분	계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 인프라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사회 및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타
2 0 2 2 년	100.0	29.7	15.0	25.6	4.9	8.2	8.8	7.5	0.3

저출산 원인 및 지원 정책 - (2)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 (단위: %)

구 분	계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	임산·출산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2자녀부터 다자녀가정 으로의 인정 및 지원 확대	출산·육아 후직 후 직장 복귀 지원	기타
2 0 2 2 년	100.0	27.5	22.8	10.8	14.7	14.1	4.5	5.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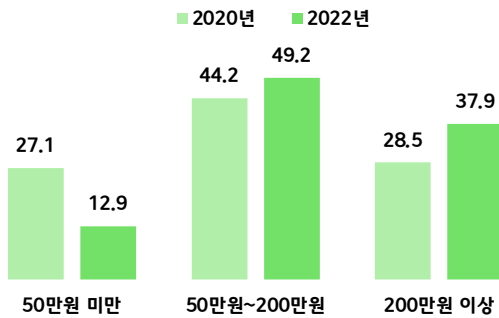
3 - 3. 월평균 가구소비

군민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2020년 대비 '증가'

- **장성군 4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50~100만원 소비**
 - 장성군 전체 가구의 26.8%는 월 평균 소비액이 '50~100만원'이라고 응답함
 - 소비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12.9%로 2020년(27.1%) 대비 14.2%p 감소함
 - 소비지출액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37.9%로 2020년(28.5%) 대비 9.4%p 증가함
-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
 -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 항목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비' 13.9%, '주거비'와 '교통비' 항목이 각각 9.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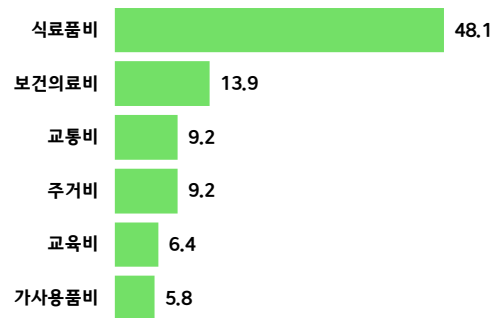
◀◀ 월평균 가구소비 ▶▶

(단위: %)



◀◀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

(단위: %)



월평균 가구소비 - (1) 월평균 소비지출액

(단위: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2년	100.0	12.9	26.8	22.4	18.6	9.9	4.2	1.7	1.9	0.6	1.0
2020년	100.0	27.1	24.4	19.8	14.9	8.2	3.2	1.7	0.1	0.2	0.2

월평균 가구소비 - (2)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종합)

(단위: %)

구분	계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여가활동비	통신비	경조사비	기타
2022년	100.0	48.1	9.2	9.2	5.8	1.5	13.9	6.4	0.7	2.2	1.6	1.4
2020년	100.0	44.1	5.9	7.8	8.7	0.7	19.6	5.4	0.9	2.5	2.4	2.0

3 - 4. 청년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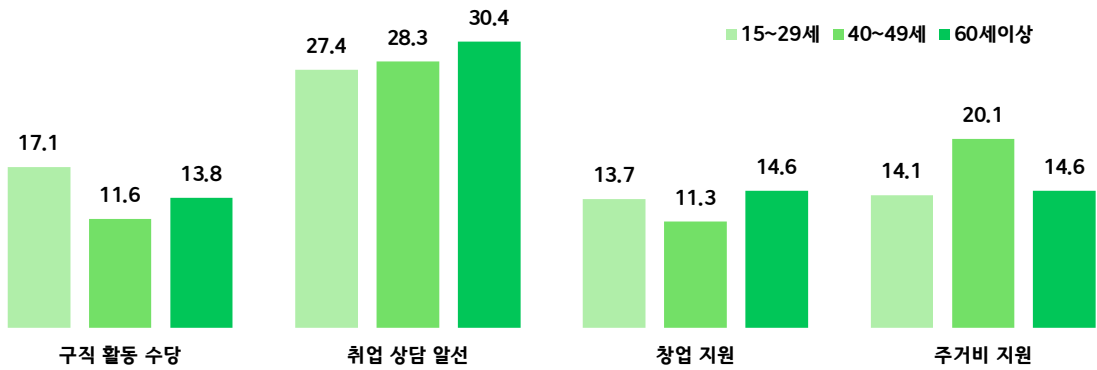
군민이 필요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 「취업 상담 알선」

·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 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 알선

- 군민이 응답한 가장 필요한 청년 지원 정책은 ‘취업 상담 알선’ 항목이 2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주거비 지원’ 16.4%, ‘창업 지원’ 13.8% 순으로 나타남
- 15~29세의 연령대에서는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항목이 17.1%로 ‘취업 상담 알선’(27.4%) 항목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주거비 지원’ 항목이 ‘취업 상담 알선’ 항목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연령별 청년 지원 정책 »

(단위: %)



청년 지원 정책

(단위: %)

구 분	계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운영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취업 상담 알선	창업 지원	주거비 지원	청년 지자체 매칭 텀장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정책 홍보	출산 양육 지원	건강 상담 지원	기타
2022년	100.0	10.2	13.2	29.2	13.8	16.4	2.8	4.9	1.5	7.1	0.8	0.1
2020년	100.0	16.4	16.6	22.9	14.3	10.8	2.0	3.1	2.1	9.3	2.1	0.5
〈 연 령 별 〉												
15~29세	100.0	12.5	17.1	27.4	13.7	14.1	4.1	7.0	1.4	2.6	0.0	0.0
30~39세	100.0	13.5	9.7	25.0	11.2	20.1	4.3	4.6	3.6	7.5	0.4	0.0
40~49세	100.0	9.1	11.6	28.3	11.3	20.1	2.6	8.3	1.4	6.7	0.5	0.0
50~59세	100.0	9.2	11.7	30.2	15.0	18.0	3.1	4.8	1.8	4.7	1.2	0.3
60세 이상	100.0	9.6	13.8	30.4	14.6	14.6	2.1	3.2	1.1	9.7	1.1	0.0
65세 이상	100.0	9.7	14.4	31.2	14.3	15.0	1.8	2.4	1.0	9.3	1.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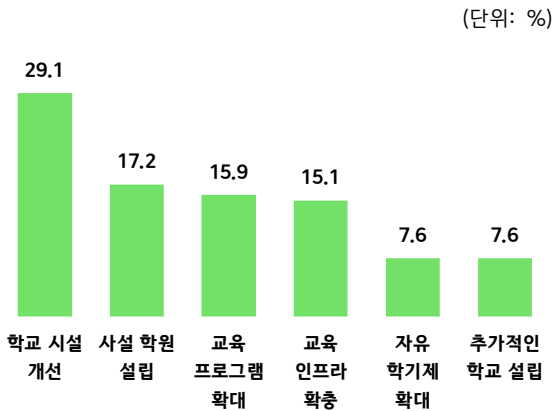
3 - 5.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군민이 생각하는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학교 시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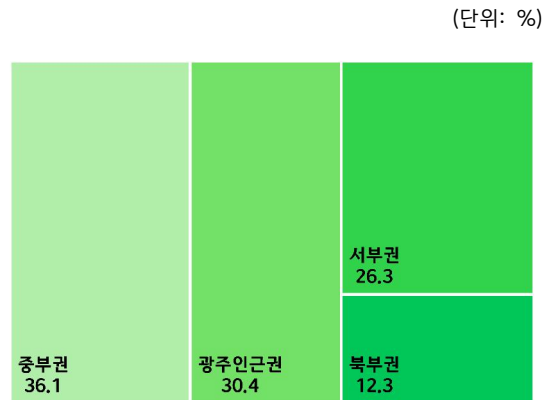
·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 개선점은 학교 시설 개선

- 군민이 응답한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점은 '학교 시설 개선'이 2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지역 내 다양한 사설 학원의 설립' 17.2%, '교육 프로그램 확대' 15.9%, '교육 인프라 확충' 15.1% 순으로 나타남
- 북부권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사설 학원의 설립' 항목이 2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외의 지역권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이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점이라고 응답함
- 광주인근권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항목이 23.8%로 '학교 시설 개선' 항목에 이어 높은 비율을 보임

«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



« 학교 시설 개선 항목 응답률 »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단위: %)

구 분	계	추가적인 학교 설립	학교 시설 개선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정비	지역 내 다양한 사설 학원의 설립	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유 학기제 확대	기타
2022년	100.0	7.6	29.1	6.9	17.2	15.1	15.9	7.6	0.4
2020년	100.0	9.4	29.2	13.4	10.9	12.6	17.7	4.4	2.3
〈 지역 별 〉									
중부권	100.0	6.3	36.1	9.0	14.7	10.6	14.8	8.4	0.0
북부권	100.0	10.4	12.3	1.8	24.7	12.7	24.5	12.0	1.5
서부권	100.0	4.6	26.3	7.1	22.0	18.6	16.0	5.0	0.4
광주인근권	100.0	12.6	30.4	6.1	10.2	23.8	10.8	5.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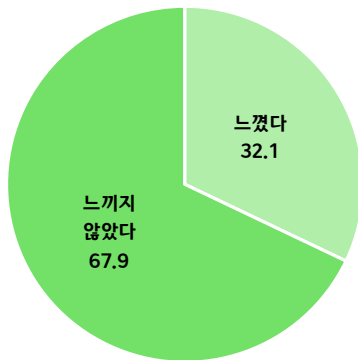
3 - 6. 스트레스 정도

군민 10명 중 6명 일상생활 스트레스 「느끼지 않아」

- **군민 10명 중 3명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낌**
 -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1%로 나타남
-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낌**
 - 직장생활을 하는 군민은 66.5%이고, 그중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은 49.7%로 나타남
 - 직업별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3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사무직 종사자가 6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학생 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느낌**
 - 학교생활을 하는 군민은 5.8%이고, 그 중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은 59.1%로 나타남
- **군민 10명 중 4명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낌**
 -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40.0%로 2020년(42.4%) 대비 2.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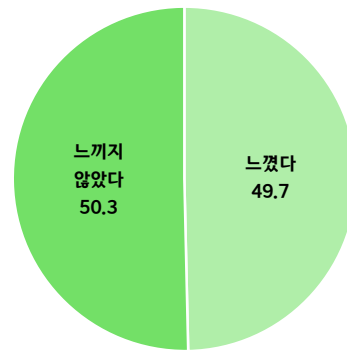
◀ 가정생활 스트레스 정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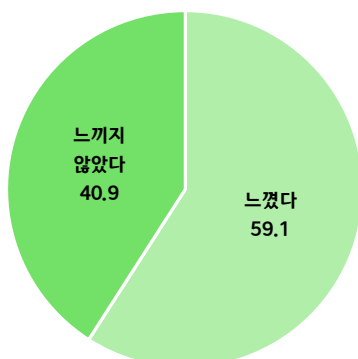
◀ 직장생활 스트레스 정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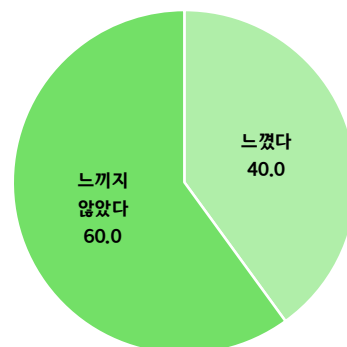
◀ 학교생활 스트레스 정도 ▶

(단위: %)



◀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

(단위: %)



스트레스 정도 - (1) 가정생활

(단위: %)

구 분	계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2022년	100.0	32.1	3.1	29.0	67.9	51.5	16.4
2020년	100.0	38.0	4.7	33.4	62.0	40.9	21.0
< 연령 별 >							
15 ~ 29세	100.0	24.6	3.1	21.5	75.4	53.2	22.2
30 ~ 39세	100.0	33.2	3.1	30.1	66.8	61.0	5.8
40 ~ 49세	100.0	40.8	3.1	37.7	59.2	51.1	8.1
50 ~ 59세	100.0	32.7	3.0	29.7	67.3	52.2	15.1
60세 이상	100.0	31.4	3.0	28.3	68.6	49.1	19.5
65세 이상	100.0	30.0	2.9	27.2	70.0	49.5	20.4

스트레스 정도 - (2), (3) 직장생활, 학교생활

(단위: %)

구 분	계	해당 있음	소계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해당 없음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2) 직장생활										
2022년	100.0	66.5	100.0	49.7	3.4	46.4	50.3	36.3	14.0	33.5
2020년	100.0	53.5	100.0	51.4	8.3	43.1	48.6	31.1	17.6	46.5
< 직업 별 >										
전문 / 관리	100.0	100.0	100.0	56.7	7.1	49.5	43.3	32.1	11.2	0.0
사무	100.0	100.0	100.0	66.4	0.0	66.4	33.6	24.5	9.2	0.0
서비스 / 판매	100.0	100.0	100.0	60.8	5.0	55.7	39.2	33.0	6.3	0.0
농림어업	100.0	100.0	100.0	30.9	1.7	29.2	69.1	40.6	28.5	0.0
기능 / 노무	100.0	100.0	100.0	48.9	2.0	46.9	51.1	42.3	8.8	0.0
(3) 학교생활										
2022년	100.0	5.8	100.0	59.1	1.9	57.3	40.9	25.8	15.0	94.2
2020년	100.0	6.4	100.0	50.0	9.5	40.5	50.0	38.2	11.8	93.6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단위: %)

구 분	계	느꼈다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2022년	100.0	40.0	2.9	37.1	60.0	47.3	12.7
2020년	100.0	42.4	4.6	37.8	57.6	41.0	16.7

3 - 7. 빈집 활용방안

군민 10명 중 2명 「빈집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 빈집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10명 중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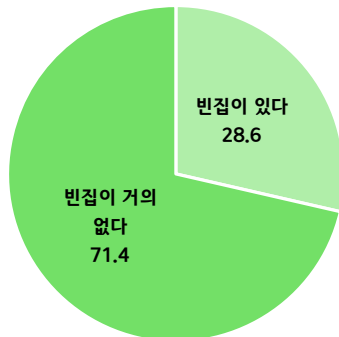
- '빈집이 있다(조금+많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28.6%로 나타남
- '빈집이 있으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19.1%로 나타남
- 직업별 '빈집이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37.9%로 가장 높았고, 사무직 종사자가 15.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군민이 생각하는 빈집 활용방안은 철거비 지원

- 빈집 활용방안은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항목이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31.9%, '주민 휴식공간, 마을회관 및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 17.6% 순으로 나타남
- 중부권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부권에서는 '도로, 공용주차장 및 공공용지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 활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3%로 타 지역권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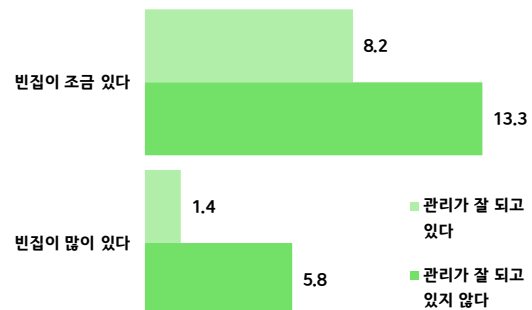
◀◀ 주변 빈집 존재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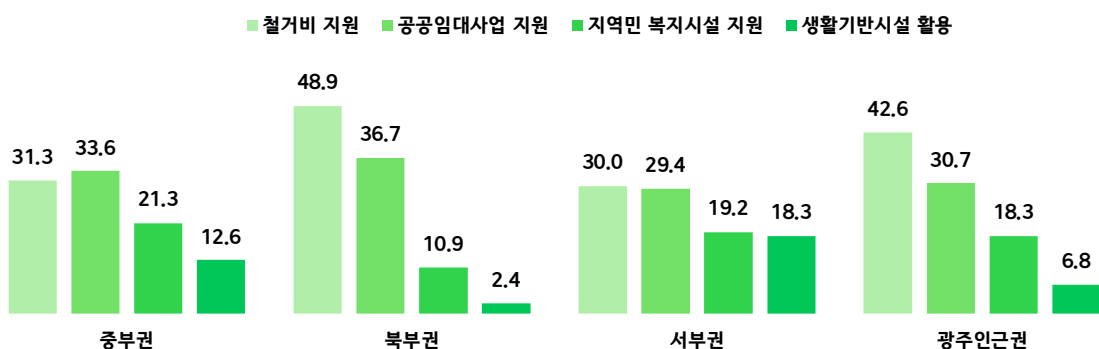
◀◀ 빈집 관리 상태 ▶▶

(단위: %)



◀◀ 지역별 빈집 활용방안 ▶▶

(단위: %)



빈집 활용방안 - (1) 빈집 수와 방치정도

(단위: %)

구 분	계	빈집이 거의 없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2022년	100.0	71.4	8.2	13.3	1.4	5.8
< 직업 별 >						
전문 / 관리	100.0	73.3	9.4	10.8	3.0	3.5
사무	100.0	84.7	4.8	5.8	1.8	2.9
서비스/판매	100.0	74.1	5.9	10.9	0.0	9.1
농림어업	100.0	62.1	14.3	15.6	0.9	7.1
기능 / 노무	100.0	73.0	4.1	16.4	0.4	6.1
남자	100.0	71.0	7.1	14.0	1.5	6.3

빈집 활용방안 - (2) 빈집 활용방안

(단위: %)

구 분	계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주민 휴식공간, 마을회관 및 공원 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	도로, 공용주차장 및 공공용지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활용	기타
2022년	100.0	37.6	31.9	17.6	10.9	2.0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1.3	33.6	21.3	12.6	1.2
북부권	100.0	48.9	36.7	10.9	2.4	1.1
서부권	100.0	30.0	29.4	19.2	18.3	3.2
광주인근권	100.0	42.6	30.7	18.3	6.8	1.6
< 성 별 >						
남자	100.0	38.5	29.7	18.8	10.8	2.2
여자	100.0	36.7	34.3	16.3	11.0	1.7
< 연령 별 >						
15 ~ 29세	100.0	49.1	24.0	14.8	12.1	0.0
30 ~ 39세	100.0	41.6	38.4	10.0	10.0	0.0
40 ~ 49세	100.0	38.2	36.6	15.4	7.9	1.8
50 ~ 59세	100.0	39.1	31.7	20.8	5.5	2.9
60세 이상	100.0	33.5	32.0	18.3	13.9	2.3
65세 이상	100.0	36.5	30.4	15.5	16.0	1.7

3 - 8.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 지원」 필요

·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귀촌 이유는 전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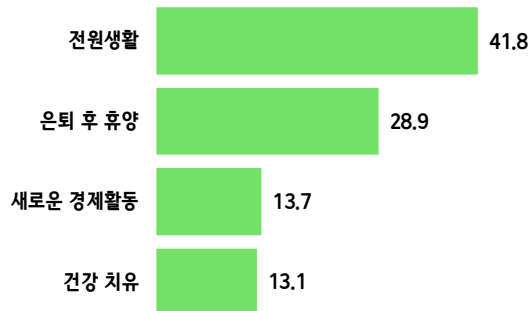
-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귀촌 이유는 ‘전원생활’ 항목이 4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28.9%,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13.7% 순으로 나타남

· **가장 필요한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은 정착자금 용자 지원**

-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 지원’ 항목이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체험 프로그램 제공’ 항목이 31.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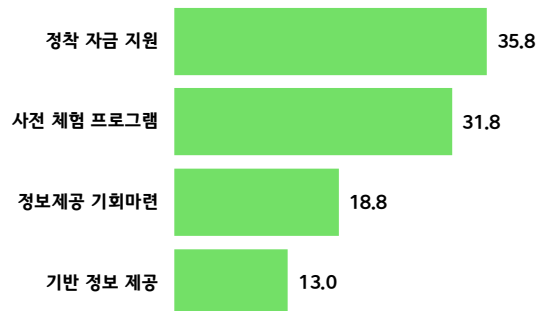
« 귀농어·귀촌 이유 »

(단위: %)



«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 »

(단위: %)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1) 귀농어·귀촌 이유

(단위: %)

구 분	계	전원생활	건강 치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집안의 가업 승계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이용	기타
2 0 2 2 년	100.0	41.8	13.1	28.9	13.7	1.4	1.0	0.1

귀농어·귀촌 이유 및 필요한 지원 - (2) 귀농어·귀촌 지원정책

(단위: %)

구 분	계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마련	귀농어·귀촌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 지원	귀농어·귀촌 지역에 대한 기반정보 제공	기타
2 0 2 2 년	100.0	18.8	31.8	35.8	13.0	0.5

3 - 9. 쓰레기 처리 만족도

군민의 쓰레기 처리 만족도 「만족」

· 군민 10명 중 6명은 쓰레기 처리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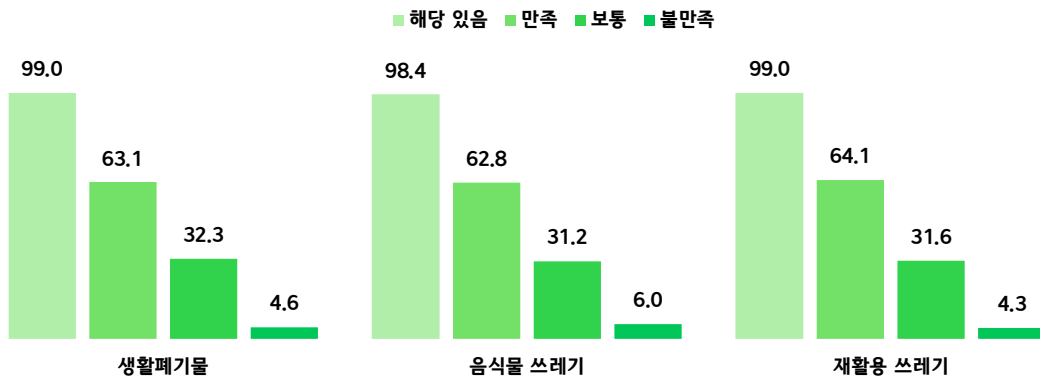
- 군민 중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3.1%로 나타남
- 군민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2.8%로 나타남
- 군민 중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4.1%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 처리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 생활폐기물 처리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항목이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27.6%,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25.3% 순으로 나타남
-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항목이 4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29.8%,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22.1% 순으로 나타남
-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항목이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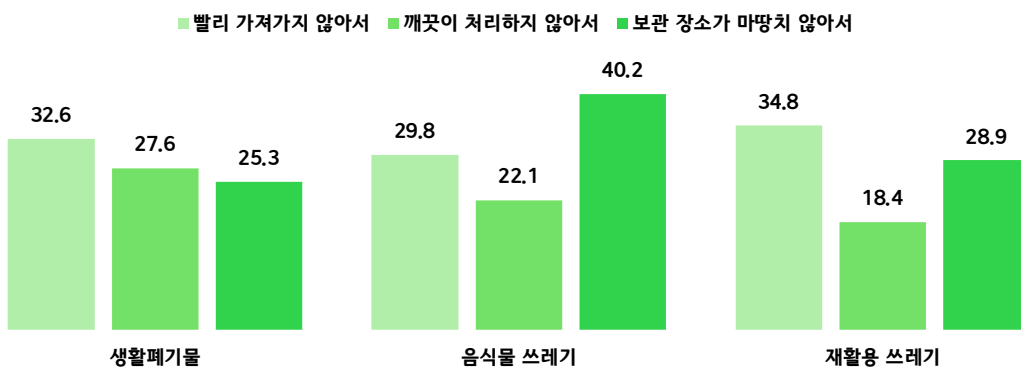
《 쓰레기 처리 만족도 》

(단위: %)



《 불만족 사유 》

(단위: %)



쓰레기 처리 만족도

(단위: 점, %)

구 분	평균 만족도	계	해당 있음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만족	매우 만족	다소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생활폐기물													
2022년	3.8	100.0	99.0	100.0	63.1	23.2	39.9	32.3	4.6	3.1	1.6	1.0	
2020년	3.8	100.0	98.4	100.0	60.2	29.9	30.3	31.6	8.2	6.2	2.0	1.6	
(2) 음식물 쓰레기													
2022년	3.8	100.0	97.8	100.0	62.8	22.7	40.1	31.2	6.0	4.2	1.7	2.2	
2020년	3.8	100.0	98.6	100.0	60.4	29.5	30.9	31.1	8.5	6.0	2.5	1.4	
(3) 재활용 쓰레기													
2022년	3.8	100.0	99.0	100.0	64.1	23.2	40.9	31.6	4.3	3.2	1.1	1.0	
2020년	3.8	100.0	95.5	100.0	60.0	29.7	30.2	32.1	8.0	5.8	2.1	4.5	

쓰레기 처리 만족도 - 불만족 이유

(단위: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4) 생활폐기물(불만족 이유)								
2022년	100.0	32.6	3.4	27.6	5.0	25.3	5.1	0.9
2020년	100.0	19.1	6.8	12.2	2.4	53.6	4.7	1.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9.8	0.0	90.2	0.0	0.0	0.0	0.0
북 부 권	100.0	42.4	5.8	6.1	0.0	39.8	0.0	5.8
서 부 권	100.0	22.5	5.0	30.8	10.0	29.9	1.8	0.0
광주인근권	100.0	62.2	0.0	0.0	0.0	18.4	19.4	0.0
(5) 음식물 쓰레기(불만족 이유)								
2022년	100.0	29.8	3.7	22.1	1.2	40.2	1.5	1.5
2020년	100.0	18.1	4.7	16.1	4.2	54.4	1.5	1.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6.8	0.0	63.2	0.0	0.0	0.0	0.0
북 부 권	100.0	32.8	6.5	3.3	0.0	51.7	0.0	5.7
서 부 권	100.0	10.3	4.7	30.2	2.8	52.0	0.0	0.0
광주인근권	100.0	64.9	0.0	0.0	0.0	26.8	8.3	0.0
(6) 재활용 쓰레기(불만족 이유)								
2022년	100.0	34.8	9.0	18.4	2.9	28.9	3.4	2.6
2020년	100.0	18.1	7.3	10.1	3.8	55.1	3.7	1.9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64.8	0.0	35.2	0.0	0.0	0.0	0.0
북 부 권	100.0	65.5	6.0	5.4	0.0	17.9	0.0	5.2
서 부 권	100.0	12.3	9.8	28.2	5.2	39.4	2.3	2.8
광주인근권	100.0	61.4	11.7	0.0	0.0	16.6	10.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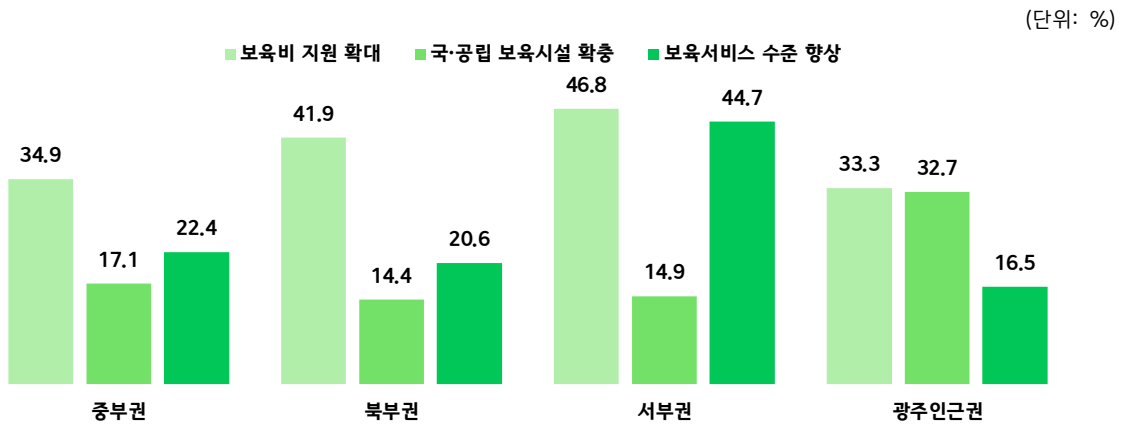
3 - 10.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군민이 생각하는 해결이 필요한 아동 보육문제 「보육비 지원 확대」

· 군민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31.3%로 가장 높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6.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8.8% 순으로 나타남
- 서부권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항목이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16.8%로 다른 지역권 대비 낮은 비율을 보임
- 15~29세의 연령대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보육비 지원 확대’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역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구 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022년	100.0	31.3	18.8	10.5	26.6	5.6	6.8	0.5
2020년	100.0	37.8	21.1	7.6	16.6	8.1	6.5	2.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4.9	17.1	12.6	22.4	4.7	7.9	0.4
북 부 권	100.0	41.9	14.4	11.7	20.6	2.6	7.8	1.1
서 부 권	100.0	16.8	14.9	9.3	44.7	7.2	6.9	0.2
광주인근권	100.0	33.3	32.7	6.1	16.5	8.0	2.6	0.7
〈 연 령 별 〉								
15~29세	100.0	23.7	17.3	13.2	30.7	10.5	3.4	1.2
30~39세	100.0	31.7	17.4	9.7	29.0	3.8	8.3	0.0
40~49세	100.0	31.7	18.9	9.5	31.2	6.0	2.7	0.0
50~59세	100.0	28.5	20.5	11.8	29.0	4.4	5.0	0.8
60세 이상	100.0	34.5	18.8	9.7	22.4	4.7	9.4	0.4
65세 이상	100.0	35.3	17.3	9.3	22.0	5.7	9.8	0.6

3 - 11. 여가활동

군민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 「TV 시청 및 DVD 시청」

· 군민이 쉬는 날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 및 DVD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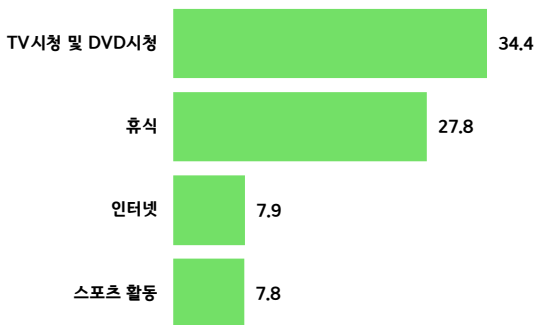
- 군민이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 및 DVD 시청' 항목이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휴식' 27.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7.9% 순으로 나타남

· 군민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 군민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항목이 2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휴식' 17.2%, '스포츠 활동' 12.3% 순으로 나타남
- 광주민권권에서는 '휴식' 항목이 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른 지역권에서는 '관광'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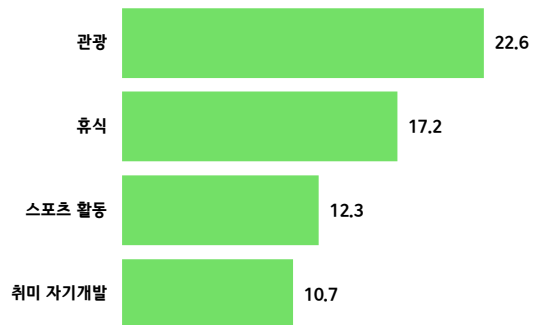
« 주로 하는 여가활동 »

(단위: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단위: %)



여가활동

(단위: %)

구분	계	TV 시청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취미 자기 개발	휴식	사회 활동 및 기타 활동	기타
(1)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2022년	100.0	34.4	4.6	1.0	4.3	7.8	3.6	7.9	3.3	27.8	4.3	0.9
2020년	100.0	34.3	3.5	0.7	2.9	6.6	3.6	6.8	4.8	30.0	5.7	1.1
(2)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22년	100.0	10.7	7.4	2.7	3.6	12.3	22.6	3.3	10.7	17.2	9.3	0.2
2020년	100.0	10.4	8.2	4.2	3.9	11.1	21.9	2.9	10.4	17.7	8.6	0.6
〈 지역 별 〉												
중부권	100.0	9.1	7.2	2.8	2.9	11.2	23.3	2.7	11.5	18.2	10.7	0.2
북부권	100.0	9.0	9.3	2.1	2.6	14.6	31.5	4.9	9.9	7.8	8.1	0.3
서부권	100.0	13.7	5.9	4.1	4.3	14.0	19.9	2.7	10.3	18.3	6.6	0.1
광주민권권	100.0	11.9	8.4	0.8	5.4	10.9	17.5	4.4	9.6	20.7	10.3	0.3

3 - 1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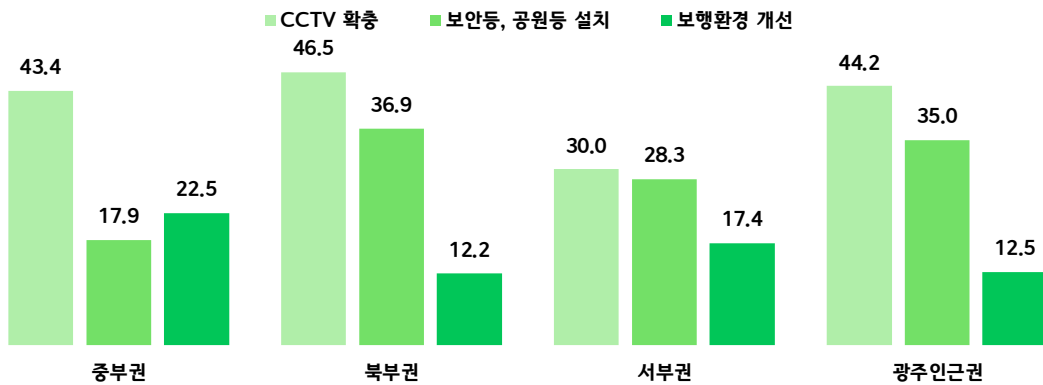
지역의 안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 「방법용 CCTV 확충」

· **군민이 생각하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은 방법용 CCTV 확충**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법용 CCTV 확충’ 항목이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 26.3%, ‘보행환경 개선’ 18.0% 순으로 나타남
- 서부권에서는 ‘안전메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 상승 홍보 및 교육’ 항목이 17.0%로 다른 지역권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 중부권에서는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 항목이 17.9%로 다른 지역권 대비 낮은 비율을 보임

<< 지역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단위: %)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구분	계	방법용 CCTV 확충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	보행환경 개선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강화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주민자율 순찰 강화	안전메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 상승 홍보 및 교육	기타
2022년	100.0	40.7	26.3	18.0	3.8	4.0	6.2	1.1
2020년	100.0	49.9	22.4	8.9	5.6	6.1	5.7	1.4
< 지역 별 >								
중부권	100.0	43.4	17.9	22.5	5.3	6.8	3.5	0.6
북부권	100.0	46.5	36.9	12.2	0.6	0.9	1.2	1.8
서부권	100.0	30.0	28.3	17.4	3.5	2.3	17.0	1.6
광주인근권	100.0	44.2	35.0	12.5	3.1	2.0	2.1	1.0
< 성 별 >								
남자	100.0	40.3	25.4	17.7	3.9	4.0	7.3	1.4
여자	100.0	41.2	27.2	18.2	3.6	3.9	5.0	0.8

3 - 13.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군민 10명 중 6명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가지고 있다」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10명 중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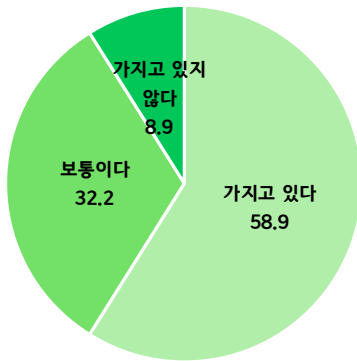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58.9%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32.2%, '가지고 있지 않다' 8.9% 순으로 나타남
- 군민 중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20년(54.0%) 대비 4.9%p 증가함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짐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하여 15~29세의 연령대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4.5%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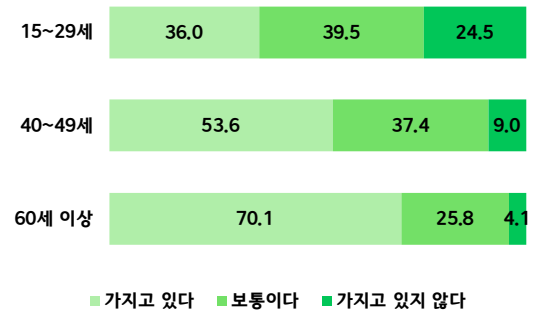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

(단위: %)



<< 연령별 소속감 및 자부심 >>

(단위: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구 분	계	가지고 있다			보통이다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이 가지고 있다	약간 가지고 있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2022년	100.0	58.9	17.8	41.1	32.2	8.9	7.7	1.3	
2020년	100.0	54.0	15.7	38.3	36.2	9.8	7.4	2.3	
< 연 령 별 >									
15~29세	100.0	36.0	6.0	30.0	39.5	24.5	20.8	3.8	
30~39세	100.0	41.8	5.9	35.9	43.8	14.4	13.6	0.8	
40~49세	100.0	53.6	12.3	41.3	37.4	9.0	7.3	1.7	
50~59세	100.0	60.5	13.5	47.0	33.1	6.4	5.2	1.2	
60세 이상	100.0	70.1	27.2	42.9	25.8	4.1	3.6	0.5	
65세 이상	100.0	72.2	31.0	41.2	23.9	3.9	3.3	0.6	